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 <b>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</b>		<b>배포일시</b>	2018.8.3(금) / 총1매(본문1)
<b>담당 부서</b>	자동차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과장 박대순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황우관 •☎ (044) 201-3843, 3844
<b>보 도 일 시</b>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BMW 차량화재와 관련한 보도기사 사실관계 안내

### <헤럴드경제·YTN 등>

- BMW 520d는 지난해 국토부가 선정한 ‘가장 안전한 차’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 점검관리와 평가시스템이 엉터리라는 기사에 대하여,
  -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한 ‘17년 BMW 520d는 리콜대상 결함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신차로서 자동차 안전도평가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 경제,8.3) >

- ◆ (헤럴드 경제) ‘불쇼’ 520d는 국토부 선정 ‘최고 안전한 차’였다
  - BMW 520d는 지난해 국토부가 선정한 ‘가장 안전한 차’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 점검관리와 평가시스템 엉터리
- ◆ (YTN) 520d 모델이 한때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

### <중앙일보>

- BMW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실상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만 렌터카를 대차한다는 기사에 대하여,
  - 정부는 BMW측이 긴급안전진단시까지(~8.14) 리콜대상차량 고객이 원할 경우 렌트카를 무상 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8.3) >

- ◆ 불날 차량만 렌트해 준다.....이틀만에 말 뒤집은 BMW
  - BMW 센터에서는 사실상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만 렌터카를 대차하겠다고 설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자동차정책과 유연형(☎ 044-201-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